

수변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최선 도내 최초 해충감시 사업 추진

진안군,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 대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금강수계 기금 12억1,8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소득증대·복지증진 등 간접지원사업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며,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3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약 6억1천만원



육정호 전경

을 차등 분배해 현재까지 총 460여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간접지원 사업은 마을회관 물품구입 및 배수로 정비공사·농로 포장공사 등 복지 증진사업과 농기계, 마을공동체 친환경 퇴비 구입 등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 마을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추진 및 3개 마을 70세대에 대해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정천면 상조림마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10억원이 편성돼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원관리지역 친환경에너지(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조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수변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해충 다발생 지역 채집기 설치 등 선제적 대응

자연특례시 무주군이 도내에서는 최초로 해충감시 사업(채집 및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충감시 사업 추진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충을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분포 또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무주군은 모기 등 해충이 주로 출현 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26주간) 채집 및 분석에 주력해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분리수거장과 무주반딧불시장 내에 해충 채집기(해충유인덫)를 설치(해충 다량 발생지역 등 채집환경 고려해 대상지 선정)하고 채집한 해충은 매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개체수 및 종류 등)의뢰할 예정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 김미화 팀장은 "해충감시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해충 최초 출현 시기는 물론, 주차 별 해충의 종류와 개체수 파악 등이 모두 가능해 방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해충 분석 자료를 토대로 방역 시간 및 횟수 설정하고 해충 종류에 따른 살충제 선정, 일본뇌염 매개체 다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 방역, 남대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목재문화체험장 어린이날 목공 무료 체험

장수군 목재문화체험장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방화동가족휴가촌 및 방화동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목공 작품 만들기 무료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방화동가족휴가촌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갠이 휴대폰 받침, 연필통, 구급차, 편지꽂이 등 190여 점의 목공 작품을 만들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5월 4일부터 3일간 선착순으로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당 최대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10명 이상 참여 시 숲나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접수

진안군은 5월 1일~6월 30일까지 수산기분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직불금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5000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어업인은 고시지역 거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취약계층 위한 그린리모델링 나선다

노후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키로

무주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 단열과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주택 27동을 선정했으며 군비 포함 1억 6천 5백만 원(복권기금 50%, 군비 50%)의 예산을 투입(당당 6백만 원 한도)해 연내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중당 사업비는 작년보다 1백만 원 증가했다"며 "혹한·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2가정을 선정해 전북광역자활기업협회, 무주군자원봉사센터와 집수리를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선착순 추가(19동 총 40동 중 21동은 선정 완료) 모집(관련 문의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320-2772)한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연면적 150㎡ 이하)을 개량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등 지역 내에 거주하려는 자로 주택개량자금 융자(100%지원)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정의 달 맞이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 특판행사

장수군이 오는 5월 2일~3일 군청 앞 광장에서 '가정의 달 맞이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한우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작년 3월에 이어 올해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여행과 가족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군민 및 외부 방문객들이 고품질 장수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틀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군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은 유통주체(장수한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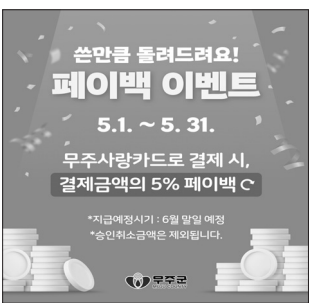


방공사, 장수·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군유통사업단)와의 협업을 추진된다. 특히 1+등급 이상의 장수한우 구이용(등심·안심·채끝·특수부위)모듬(부채, 치마, 토시, 제비취리) 부

위와 국거리·불고기를 시중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작년부터 지속된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증가로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분이 가족, 지인과 할인한 가격으로 고품질 장수한우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한우'는 롯데슈퍼·백화점, 세계로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을 통해 소비자에 브랜드 인지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몽골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대한민국 최고 명품 한우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사랑상품권페이백 이벤트 5월 한달간 실시

무주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간 무주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형)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카드·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승인 금액의 일부(5%)를 해당 고객의 카드에 6월 중 자동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충전은 고희사랑페이 앱 또는 무주농협 등 관내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하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동력이 돼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충전·사용 절차가 용이해 사용충도 두터운 만큼 무주군민뿐만 아니라 5월에 무주 여행을 계획 중인 방문객들에게도 무주방문의 해 명소설 할인 혜택과



함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무주사랑상품권페이백 이벤트 사용실적은 6,346건으로 1억 3천 6백여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등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사용 촉진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에 기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원예작물 바이러스 신속진단 서비스 운영

진안군은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등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작물 바이러스 신속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식물 바이러스병은 방제 약제가 없고 전염성이 빨라 이병주(바이러스 발병 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어 초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군은 시설원예 작물의 바이러스병을 농가 현장에서 쉽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4종 500점의 진단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농업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원예작물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현장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진딧물, 총채벌레와 같은 매개충 방제가 중요하며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진단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